**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8A –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의 변형**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매튜 수업 8A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3페이지에 있는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강의 개요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17장을 다룰 것이며, 16장을 다루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각 장의 강해를 다룬다는 것은 각 장을 검토하고, 흐름을 파악한 후, 핵심적인 주해적, 신학적 쟁점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노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장은 자연스럽게 네 부분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변형,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 성전세 납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요약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8절이 "여기 있는 너희 중 어떤 사람들은 인자가 그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16:28)라는 말씀으로 끝맺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그 구절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설명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야기, 즉 변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형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림, 어쩌면 엿보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권능은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충만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변형에서 그 권능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17장의 처음 세 절에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4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의 반응과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형 사건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첫째,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에 성급하게 반응한 것이 예수님의 세례 때 처음 들었던 하늘의 음성에 의해 바로잡힙니다.

17장 4-8절을 3장 17절과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고, 17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경 회의가 있어야 한다는 베드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일축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금하신 것인데, 이는 17장, 그 장 조금 뒤에 나옵니다.

9절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 환상을 말하지 말라. 이는 16장 20절을 떠올리게 하며, 17장 9-13절에서 제자들이 엘리야의 장래 재림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장래 고난을 소위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과 비교하시면서, 엘리야의 과거 재림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답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차립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고 듣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엘리야의 도래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고난을 요한의 고난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응답으로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절은 변형 사건(17:1-3),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한 교훈(17:4-8),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옛 엘리야와 현재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교훈(17:9-13)을 담고 있습니다. 자, 14-21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소년의 치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소년의 엑소시즘과 치유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18절에서 치유 자체를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19-2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을 다룹니다. 두 부분 모두, 첫 번째 부분인 14-16절과 두 번째 부분인 19절에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분 모두 예수님의 응답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인 17-18절과 두 번째 부분인 20-21절에 있습니다.

14-18절과 19-21절 두 부분에서 제자들의 무능함은 예수님의 능력과 대조됩니다. 16-19절에서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18-20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하십시오. 이 짧은 에피소드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는 17절에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20절에서는 제자들조차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깊은 독자라면 마태복음 앞부분의 이러한 주제들에 이미 귀 기울였을 것이며, 이러한 어려움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자들을 위한 교훈에 대해서는 이 강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22-27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십니다.

제가 제목을 붙인 방식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성전세 납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성전세 사건은 베드로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24절과 25절 전반부에 나오는 성전세 징수원들의 질문, 두 번째는 25절 후반부에서 26절 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인 26절 하반절과 27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는 원칙적인 내용, 27절에는 실제적인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베드로는 세리의 질문에는 잘못 대답했고 예수님의 질문에는 옳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2절에서 의식적인 손 씻기 문제로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셨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2장 2절을 인용한 12장 19절의 취지대로, 예수님께서는 22절 하반절에서 성전세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 하반절과 22절,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전에 가버나움과 다른 곳에서 세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셨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9장 9-11절로 돌아가서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이 구절을 뒤집어서, 죄인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도 종교적 위선자들에게는 큰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을 인용한 12장 19절과 20절의 교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없는 죄인들을 부드럽게 대하셨고, 종교가 있는 위선자들을 엄하게 대하셨으며,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불쾌함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인 듯합니다. 그분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으시며, 그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로마서 14장 13-23절과 고린도전서 8장 9절, 1절, 그리고 9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는 겸손과 권능이 놀랍도록 조화롭게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에게 순복하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동전을 받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너무 빨리 말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고, 어쩌면 그 교훈을 깨닫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와 해설을 요약하자면, 16장 5절부터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나누신 대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장 5-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셨고, 16장 13-17절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16장 18-20절에서는 교회를 위한 자신의 계획을, 그리고 16장 21-28절에서는 제자들과 함께할 자신의 미래를 밝히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은 변화산에서 기적적으로 확증됩니다. 요한의 엘리야와 같은 사역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17장 12절에서 수난 예언으로 바뀝니다. 치유의 간증은 두 가지 익숙한 주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세대의 믿음 부족(17장 17절)과 제자들의 믿음 부족(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예수님의 제2 고향에 대한 불신을 암시합니다(마태복음 11:23, 24 참조). 가버나움은 그곳에서 행해진 모든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한 아들 되심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는 데 동의하셨습니다(마태복음 17:27).

위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마태복음 17장은 마태복음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3장 5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전체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당시 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실하게 가르치셨고, 그들의 작은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을 큰 슬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누가 가장 큰 자가 될지와 같은 육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8장 1절과 16장 23절을 비교해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신실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진정한 왕국 공동체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대한 우리의 해설적 고찰을 마치고 이 장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주석적, 신학적 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의 변형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에 심오한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변형과 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마태복음 독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사역은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한 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자비의 사역을 행하셨고, 하늘의 권위로 토라를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7:29). 심지어 폭풍을 가라앉히고 빵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초자연적인 자연 현상의 통제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재림, 모든 인류의 심판, 그리고 이 땅에 의로운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전적인 권세를 받으시고, 제자들이 재림 전 현 시대가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왕국 메시지를 전할 때 그분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8:18-20).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의 지위, 구약의 모형과 예언 의 성취 , 그리고 미래의 왕국에 대한 약속과 일치합니다. 변형은 마태의 고차원적인 기독론과 묵시적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과 이 세상을 침략하여 영원히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증명합니다. 변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언젠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오실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변형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영광이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고 세상이 회복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함께 누리셨던 영광을 다시 주시기를 구하시는 말씀과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형은 외부에서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외적인 영광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 가려져 있던 그분의 신성한 영광을 일시적으로 비추어 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제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모세와 엘리야는 가치 있는 인물이지만, 막이 내려갈 때 펼쳐지는 구원의 드라마에서 단지 조연일 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무대 오른쪽에서 내려왔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속 역사의 무대 정중앙에 남아 있습니다. 17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는 대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모든 의미에서 그들의 주님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변형은 인간 예수가 외적인 영광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본질적인 영광이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부활과 승천으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24절이 여기에 해당하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파 조직신학자들은 변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야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진정한 인간 아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간성이 어떻게 변형에 연루되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답은 영원이 걸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변형에서 제자들이 받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가장 깊은 영적 필요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난해한 지적 질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제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탁월함에 관한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고, 베드로는 히브리 성경의 초막절, 즉 수콧과 비슷한 임시 초막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 임시 초막을 세워서 야영을 하고, 어쩌면 캠프 모임이나 야외 성경 컨퍼런스 같은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때문에 그의 제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 세 개의 초막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제안이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드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모세를 위해 하나, 엘리야를 위해 하나, 예수님을 위해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초막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표현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미미한 칭찬으로 폄하하고, 그분에게만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께만 속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했고, 분명 위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 그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3장 17절을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는 전형적인 선지자였지만, 신명기 18장 15-19절에서 예수님을 최종적인 종말론적 선지자로 언급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에 맞서 모세의 율법을 용감하게 옹호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칭찬받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최종적인 교사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율법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제안이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오직 예수님께만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자들이 성경 예언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엘리야, 요한, 예수의 사역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자체로는 엘리야가 아니었지만 요한복음 1장 21절과 누가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의 선구자로서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가 말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자의 본보기였습니다(마태복음 3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인용).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 모든 신약 성경 본문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의 복잡성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성취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궁극적인 성취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요한이 소위 두 증인 중 한 명인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는 요한 계시록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자들의 믿음 부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이 구절이 그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동시대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거의 없었고,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음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사람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고 믿었던 군중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용하자면, 믿음은 오직 물질적인 영역에서만 작용했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종의 예언적 인물, 곧 선지자로만 인정받으셨습니다(마 16:14, 21:11). 군중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참된 정체성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14:33과 16:16을 보세요. 문제는 믿음의 강도나 양이 아니라, 그 대상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입니다. 믿음의 힘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간질병을 앓는 소년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장애물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14:31). 믿음은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든 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명령, 즉 신학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우리의 명령을 승인하시고 실행하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고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을 대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운전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우리 말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명령을 반드시 지지하시거나 실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7장 29절까지의 핵심 주제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들은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며, 특히 13장에서 왕국의 말씀, 즉 왕국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적 담론과 다음 강의에서 다룰 18장의 왕국에서의 위대함과 영적 가치에 대한 담론 사이에 나오는 이 이야기 블록에서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이 13장 53절부터 17장 29절까지의 담론 간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될까요? 우선, 예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반대했던 것이 분명히 강조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13장 53절 이하에 나오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대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해, 그의 비천한 출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는 특히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그의 고향 사람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극적인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세히 묘사된 요한의 끔찍한 살해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의 반대와 불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엘리야, 또는 죽음에서 돌아온 세례 요한으로 묘사하는 16장 14절의 다소 긍정적인 진술조차도,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을 미약하게나마 칭찬하며 정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진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6장 14절에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그 세대의 불신앙은 17장 17절에서도 언급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도 그 주제는 계속되고 더욱 강렬해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심화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입니다. 14장 10절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건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17장 12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이 요한을 자기들의 뜻대로 처리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12는 14:10을 예수님의 운명을 미리 엿보거나 엿보는 듯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삶이 여러 면에서 얼마나 유사한지 놀랍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6:21의 소위 첫 번째 수난 예언과 17:12의 메아리, 17:22-23의 수난에 대한 두 번째 명확한 표현은 모두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에 대한 에피소드적 강조가 크지 않습니다. 구절 중 어느 것도 유대 지도자들의 추가적인 반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지 않지만, 주로 14:10과 17:12의 연결과 여기에서 시작되는 예수의 수난 예언에서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13:53에서 17:29까지 실제로 강조되는 것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그가 이 땅을 떠날 때를 대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며,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중 일부를 간략하게 나열하겠습니다.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회의적이었던 점에 주목하십시오 .14 :15 이후에 5,000명을 먹이신 것과 15:33에 4,000명을 먹이신 것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몇 조각의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그런 맥락에서 16:6 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훈적입니다.왜냐하면 그들이 16:6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전부가 예수님께서 이미 몇 조각의 음식으로 두 번이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후에 그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는 14장 26절에 나오는 폭풍 속에서의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또한 14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 끔찍한 경험을 겪고 믿음이 부족한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33절에서 "예수님,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마땅히 드려야 할 공로를 돌려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5장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을 불쾌하게 할까 봐 걱정하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순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바리새인들이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15장 23절에서 가나안 여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16장 6절에서 언급했듯이 누룩에 대한 이해 부족은, 16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원치 않아 떡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세 가지 실수, 17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설교할 것을 순진하게 제안한 것, 그리고 17장 25절에서 제자들이 성전세를 내는 것에 동의한 것 등은 그가 배울 것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정한 모범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와 유사합니다.

17:10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질문은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17:19에 나오는 악령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초점을 맞추셨고, 마태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지만 감사하게도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그들의 믿음처럼 발전해야 합니다.